

워킹푸어 가족의 가난 탈출기

청소 노동자, 쿽 서비스 기사, 오토바이 배달, 콜센터 직원,
식당·마트 노동자 등 3대 가족의 노동 이야기



작아진 등지
Fly the Nest Books

워킹푸어 가족의 가난 탈출기

- 청소 노동자, 쿽 서비스 기사, 오토바이 배달, 콜센터 직원, 식당·마트 노동자 등 3대 가족의 노동 이야기-

- 지은이 : 강은진
- 출판사 : 작아진 등지
- 장르 : 교양 < 사회과학, 교양 < 에세이
- 키워드 : #노동 #가족 #교육 #여성
#가난 #청(소)년
- 크기 : 145*210mm
- 페이지 : 256p
- 가격 : 14,800원

강은진 (지은이)

15년 차 직장인이다. 언론사, 게임 회사, IT 회사에서 기자, 퍼포먼스 마케터, PR 매니저 등으로 일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대학원을 나왔다. 영어와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비롯해 마케팅 관련 몇 개의 자격증이 있다. 글로벌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으며 수백억 원의 마케팅 예산을 집행한 경험이 있다.

작아진 등지 (출판사)

이소(離巢)란 새끼 새가 자라 등지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에 머무르지 않고,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일상 속 익숙한 삶을 낯설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겠습니다.

- 이메일 : flythenestbooks@gmail.com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48 3185호

- 연락처 : 010 6568 2024

'워킹푸어 가족의 가난 탈출기' 소개

오토바이·다마스 쿽 서비스 기사, 청소 노동자, 콜센터 직원, 식당·마트 노동자, 오토바이 배달 기사로 일한 저자의 3대 가족 노동 이야기다.

저자는 70대 아버지와 40대 언니들 그리고 20대 조카들의 생애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각의 노동사를 정리했다. 또 책과 논문 그리고 기사들을 참고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노동 경험의 차이, 1960년대 산업화, IMF, 코로나19 등 사회·경제 변화가 개인의 노동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는지 등을 분석했다.

이 책을 봐야하는 이유

한 가족의 노동사지만, 어느 가족이나 겪었을 법한 일이다. 혹은 자수성가를 이뤘거나, IMF 때 망했거나,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거나,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벌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방황하거나 등 삶의 한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다.



작아진 등지
Fly the Nest Books

'워킹푸어 가족의 가난 탈출기'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강영수. 가방 공장 사장의 꿈은 이뤘는데, 왜 킥 서비스 가게 사장은 될 수 없었을까?

가방 공장 노동자

도시 빈민 | 가방 공장 노동자 | 1년 만에 받은 첫 월급

가방 기술자 | 성과급 | A급 기술자 | 사진사 부업

27살, 방 6칸짜리 집주인이 되다

+ 아빠가 10년 만에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가방 공장 사장 · 가방 자재 도매상 사장

가방 공장 사장 | 백색전화 | 위기 | 가방 자재 도매상 사장 | 장사 수완

어음 와리깡 | 외상, 어음, 현금 등 복잡해지는 장부들 | 부도

§ 어음제도의 개선방안과 신용보험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아빠가 다시 가난해진 이유 : IMF와 중산층의 몰락

오토바이 킥 서비스

오토바이 킥 서비스 기사 | 출근비는 늘고 홍보비까지

다시 킥 서비스 | 63년 노동자 생활 종료

§ “용산에서 하는 오토바이 킥 서비스는 ‘지계꾼’ 이야

§ 이루지 못한 킥 서비스 가게 사장의 꿈

+ 아빠의 노동은 지금도 진행 중

엄마

2장 강지영. 아르바이트생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학입시의 길

재수, 삼수 그리고 사수 | 아르바이트 인생 | 아르바이트도 일이다

백화점 판매

+ 지영 언니는 왜 대입에 실패했을까

취업의 길

1999년 IMF 후 | 취직 | KT 114 전화 안내원 | 맨날 맨날 진상 고객들

KT에서 한국인포서비스 직원으로 | 정규직 | 결혼 그리고 퇴사

+ 계약직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 또 다른 지영 언니가 나올 수 있을까?

3장 강유정. 모자가정 여성 가구주에게 가난은 숙명

실업계 고등학교

중소기업에 취직 | 대기업 제약회사로 이직

§ 유정 언니의 절친 3인방



반쪽짜리 여성 가구주

엮힌 데 뉘친 격 |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생활비

김밥집, 중국집, 백반집, A마트, B마트

+ 여성 가구주에게 가난은 숙명

다마스 쿼 서비스 기사

가족회의 | 다마스 쿼 서비스 기사 | 능력자 | 이 또한 지나가리라

§ 남성의 직업 : 쿼 서비스

§ 다마스 쿼 서비스 월 고정비

+ 누가 쿼 서비스 기사의 배달비를 가로채는가

4장 이민준. 스트레스상 탈모가 생겨도 A 호텔에서 계속 일한 이유

학생 그리고 노동자

중학교 3학년 첫 알바 : 하루 12시간씩 근무

고등학생 때는 오토바이 배달 : 한 달에 쉬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

가게 오토바이 배달 vs 배달 대행 업체

§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

+ 학생도 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직업의 차이

기회 | 호텔 객실팀 | 스트레스성 탈모 | 직업 | 임대

직업은 꿈의 다른 말

+ 왜 민준이는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길 정도로 힘들면서 계속 A 호텔에서 일했을까?

5장 이지훈. 오토바이 배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도박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

가출 그리고 도박 | 리셀러 | 도박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배달 대행

§ 지훈이의 20년 지기 동네 친구들

+ 지훈이의 라이더 수입에서 빠진 비용

스무 살, 직업을 가질 나이

카페 매니저 | 치킨집 주방 | 병원 사무 보조 | 비트코인

돌고 돌아 다시 오토바이 배달

다시 치킨집 | 다시 오토바이 배달 | 입대를 앞두고

§ 배달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문제

+ 지훈이는 오토바이 배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

나오는 글

참고문헌



작아진 둥지
Fly the Nest Books

'워킹푸어 가족의 가난 탈출기' 요약

1장 강영수 : 가방 공장 사장의 꿈은 이뤘는데, 왜 퀵 서비스 사장은 될 수 없었을까.

아빠(1949년생)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다. 하지만 아빠의 성실한 노동과 1960~7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아빠는 가방 공장 노동자에서 가방 공장 사장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아빠는 승승장구했다. 가방 공장 사장에 이어 가방 자재 도매상 사장이 되었다. 서울에 있는 45평 아파트에서 살았고, 2대의 자가용이 있었다. 하지만 IMF로 아빠의 성공 신화는 무너졌다. 아빠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가 되었고 다시 가난해졌다. 아빠는 젊었을 때처럼 성실한 노동만으로 가난을 극복할 수 없었다. 아빠는 20년간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로 생계를 꾸렸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일거리가 끊기며, 아빠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 사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로 노동사를 마감했다.

2장 강지영 : 아르바이트생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지영 언니(1977년생)가 재수할 때 아빠가 부도났다. 선생님이 꿈이던 지영 언니는 대학에 가기 위해 편의점·카페·식당·백화점 등에서 3년간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했다. 하지만 대학 입학에 실패했다. 언니는 취업을 결심했지만, IMF 후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할 때다. 언니는 다시 아르바이트하고 학원에 다니며 취업을 준비했다. 그리고 2000년 KT 114 전화 안내원으로 취직하는 데 성공했다. 계약직이었다. 민영화를 진행하던 KT는 대규모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언니는 KT에서 한국인포서비스로 소속이 바뀌었다. 회사는 '당근'으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언니는 그 기회를 잡았다. 지영 언니는 아르바이트생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대기업 정규직원이 되었다. 일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언니의 생활 또한 안정되었다. 정규직이 된 지영 언니는 결혼했고, 1년 뒤 퇴사했다. 현재 지영 언니는 전업주부다.

3장 강유정 : 모자가정 여성 가구주에게 가난은 숙명

유정 언니(1975년생)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 제약회사 경리로 일하다 결혼과 함께 퇴사했다. 그리고 29살에 3살, 5살 두 아이를 책임지는 여성 가구주가 되었다. 언니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식당 설거지, 주방 보조, 마트 캐셔 등으로 일했다.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고, 벌이는 최저시급 수준으로 매우 적었다. 가족의 도움 없이 생활은 불가능했다.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언니는 다마스 퀵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간당 버는 돈은 언니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언니는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서 두 아이를 부양할 만큼 돈을 벌었다. 지금도 언니는 다마스 퀵 서비스 기사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다.

4장 이민준 :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겨도 A 호텔에서 계속 일한 이유

조카 민준(2001년 출생)이는 22살로 경력 6년 차다. 중학교 3학년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고등학생이 되어 오토바이 배달을 할 때는 새벽 5시까지 일했다. 한 달에 쉬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오랜 시간 늦게까지 일한 민준이는 항상 학교에 지각했다. 민준이는 노동자로도, 학생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다. 대학생이 된 민준이는 A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동안 해왔던 '일'과 달랐다. 민준이는 A 호텔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4대 보험에 가입했다. 또 처음으로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받았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었으며, 아르바이트생에서 인턴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졌다. 민준이는 이곳에서 '외국어를 잘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민준이는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5장 이지훈 : 오토바이 배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조카 지훈(1999년생)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 지훈이에게 도박은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였고, 가출이나 실직으로 돈이 필요해질 때마다 도박을 했다. 하지만 도박은 빚만을 남겼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지훈이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위험하지만 '많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했다. 스무 살이 된 지훈이는 직업이 갖고 싶었다. 치킨 집에서 치킨도 튀기고 카페에서 매니저로도 일했다.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는 지훈이가 돈을 벌 방법은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위험하고, 힘들고, 오랜 시간 일하던 지훈이는 반복적으로 일을 그만두었고, 이것은 다시 도박에 손을 대는 이유가 됐다. 지금도 지훈이는 오토바이 배달을 한다.



1.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하는 아빠가 내가 일하는 사무실로 배달을 온다면?
동료들과 함께 간 식당에서 언니가 일하고 있다면?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조카가 내가 일하는 사무실로 점심 식사를 가져온다면?
내가 일하는 사무실 건물 청소를 엄마가 한다면?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또 우리 가족의 성실한 노동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조금 두렵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

이 책은 우리 가족의 노동에 관한 이야기고, 또 나의 고해성사다.

2.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은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근로빈곤층이다.

근로빈곤층은 계급과 계층을 동시에 알려준다. ‘근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빈곤층은 계급과 계층을 동시에 알려준다. ‘근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을 말한다. ‘빈곤층’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 자원이 부족한 빈곤 속에 있는 계층을 뜻한다. 우리 가족의 계급은 노동자고, 계층은 빈곤층이다.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은 가난으로 훼손당했다.

3.

IMF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가 닥치거나, 자식·부모·형제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기거나, 본인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직장을 잃으면 어김없이 온 가족이 가난해졌다. 월세, 병원비, 이자 등 가난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더 오래 일하고, 더 힘든 일을 하고, 더 위험한 일을 했다. 하지만 버는 돈은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난한 걸까? 노동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일하는 자의 가난은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산물이다.

4.

지금 지훈이는(24살)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번다. 하지만 저축할 정도는 아니다.

언제 다치거나 아플지 모르고,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 결혼 등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긴다면, 지금 수준의 벌이로는 ‘워킹푸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훈이 혼자서 200만 원을 벌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둘이 번다면 400만 원(200만 원 × 2명 = 400만 원), 아이가 생겨 한 명이 아이를 돌보게 된다면 200만 원으로 3명(부부 + 아이)이 먹고 살아야 한다.

지훈이에게는 연금이나 보험, 퇴직금 등의 안전장치도 없다.

5.

노동자의 해피엔딩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일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는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며, 존경과 애정을 표해야 한다.

노동은 인간의 의무이자 권리다.



책 미리보기

